

NEWSLETTER

2025/01/01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난 소식처럼 주된 사역을 내려놓고, 안식년처럼 몸도 맘도 재 충전하는 시간을 6개월 가졌습니다. 오랜 시간 사역 속에 쉼이 필요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첫 손녀(5개월)를 안게 되는 기쁜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얼굴을 향하는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U국 선교사로 떠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중보해 오며 준비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처음부터 나라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구 소련-소비에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U민족의 청년들에 거룩한 부담감의 응답 받으면서 독립된 U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국가 문제든, 가정 문제든, 개인 문제이든지 주께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난 6개월동안 미얀마 친구가 영접하게 되는 기쁜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거의 20년지기 친구입니다. 라오스 가족이 떠나고, 또 다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미얀마 내에서 소수민족 그룹으로 핍박 속에 있었는데, 난민으로 온 가족입니다. 이름은 코(KO)입니다. 부인은 미야(MYA) 그리고 아들은 투라(THURA)입니다. (가족사진)

기도 해 주세요.

- 코의 가족은 남편만 영접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족을 통해 함께 있는 민족그룹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길
- 저희는 앞으로 나아갈 사역방향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청년 사역은 멈추었지만, 친구관계 사역은 - 약속된 정기적은 만남은 아니지만 -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난민으로 온 캐빈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조금씩 신앙이 자라가고 있었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 눈이 오거나 하진 않지만 호주 안에서 일교차가 크고 추운 곳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따뜻한 북부 지역으로 이주를 한답니다.

이 가족이 떠나게 되어 마음이 조금 씁쓸했지요. 하지만, 저는 개척사역이 부르심이다 보니, U국에서도 땅을 일구며 개척하여 사람들을 일으키고, 떠나는 것이 사역이었던 것처럼, 이들이 복음을 듣고 떠나는 것으로 제 임무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갈 자가 있으면, 물 주는 자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자가 있는 것처럼요. 저는 모든 것이 제 사역이라 생각하지 않고 지금껏 사역을 해 왔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일으키고, 청년 예배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 사역에 몸이 지쳐 그만두었지만, 그 뒤에 청년 중심의 연합찬양 예배 모임이 만들어 졌습니다. 제가 할 때는 캠퍼스의 작은 모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도시의 큰 모임이 되었지요. 이제 이 도시에 예배와 기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임무는 땅을 계속 기경해 가는 것입니다.



재정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동역자님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기도편지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종으로 달려가는 이혁, 김은주 올립니다.